

2018년 8월 전문건설업(SC) 경기실사지수(BSI)

I.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9년 9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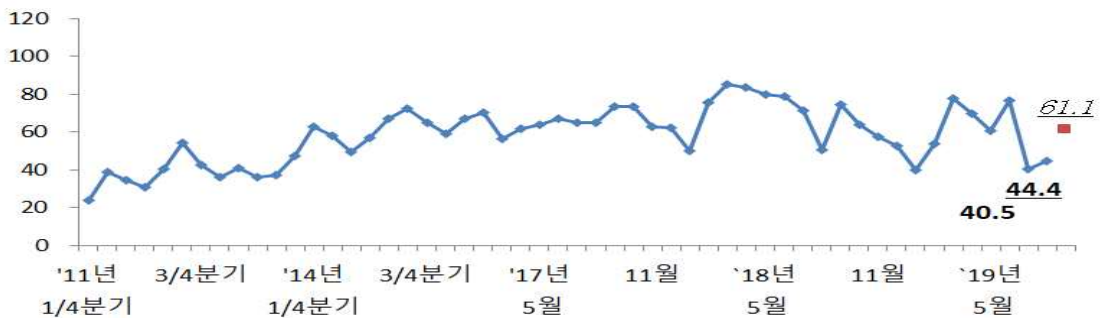
○ 8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소폭 개선, 9월엔 개선 전망

○ 8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up>1)</sup>는 전월(40.5)보다 소폭 개선(44.4) 되었으며 9월(61.1)에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로도 건설수주의 급격한 감소 등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sup>2)3)</sup>.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7.8(51.9→57.9), 지방은 54.9(49.4→54.9)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 차월에도 회복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1>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9년 9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2019년 8월 평가	44.4	57.8	54.9
2019년 9월 전망	61.1	69.5	67.7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조사로 집계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 2) 정부는 연내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할 계획임. 지난 7월까지의 정부 재정집행률이 71.8%, 국토부의 SOC사업집행률이 72%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안임
- 3) 금년 상반기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약 24조 원), 생활SOC 3개년 계획(약 48조 원), 노후 인프라 개선대책(약 32조 원) 등은 향후 몇 년간 건설공사물량으로 이어질 것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금년보다 19%가량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편성되어 이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SOC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임

##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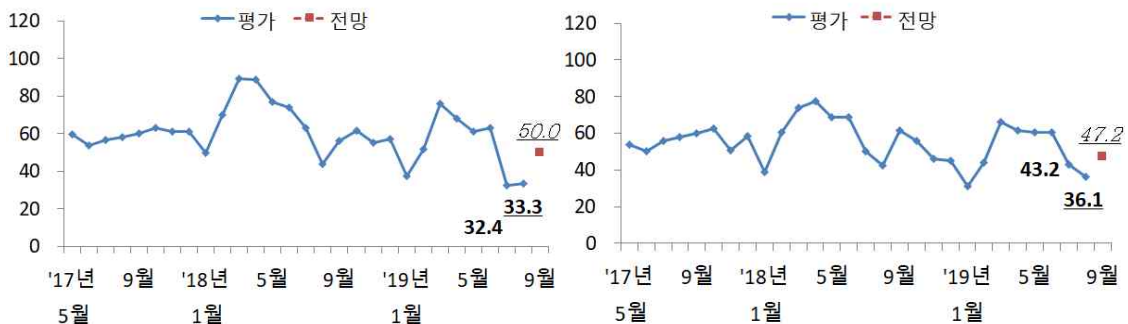
###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하도급 모두 전월에 이은 금년 최저 수준을 지속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은 33.3(32.4→33.3)로서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전월과 유사, 하도급은 36.1(43.2→36.1)로 지난 전월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차월에는 원도급보다는 하도급 모두 일정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sup>4)5)</sup>.
- 지역별로는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1.9→51.6)과 지방(47.6→47.6) 모두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마찬가지로 수도권(46.5→47.7)과 지방(45.8→45.1)에서 전월의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했음.

<표-2>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원도급	'19년 8월 평가	33.3	51.6	47.6
	'19년 9월 전망	50.0	65.6	62.2
하도급	'19년 8월 평가	36.1	47.7	45.1
	'19년 9월 전망	47.2	62.5	59.1



<원도급>

<하도급>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 4) 참고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의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공공부문 7% 증가, 민간부문 1% 감소) 72조 824억 원으로 집계됨. 다만 민간 주택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통계청의 집계로는 금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기보다 건설수주가 줄었으며 그 정도가 현격한 것은 아님
-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의 전국 건축물 인허가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했으나, 여기서는 수도권의 감소폭이 1.6%에 불과한 반면 지방의 감소폭은 25.3%에 달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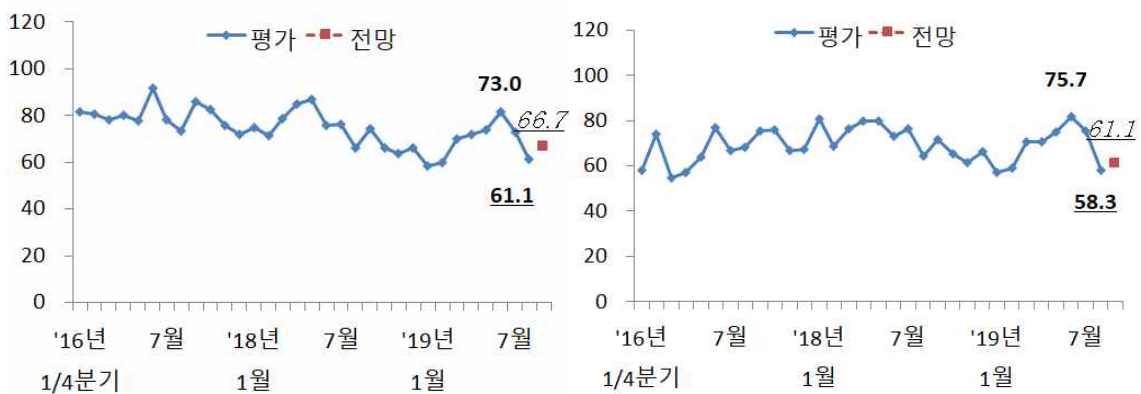
##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하락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1.1(73.0→61.1)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66.1)보다도 소폭 낮은 수준임.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도 58.3(75.7→58.3)도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64.4)보다 악화됨<sup>6)</sup>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수도권(70.5→64.1)과 지방(71.1→63.4)에서 모두 전월 보다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와 같은 흐름을 보였음.
- 자금조달지수도 수도권(69.8→64.8)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지방(71.1→63.4)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표-3>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공사대금수금	'19년 8월 평가	61.1	64.1	63.4
	'19년 9월 전망	66.7	70.3	69.5
자금조달	'19년 8월 평가	58.3	64.8	63.4
	'19년 9월 전망	61.1	71.9	69.5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6) 참고로 상반기의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 등 최근의 환경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사라면 오히려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

###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다시 하락

- 전월에 개선세를 보였던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금월에 다시 63.9(70.3 →63.9)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59.4)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참고로 인력수급문제는 주로 전문기능공의 수급에 관한 것임에 따라 단순히 인건비의 높고 낮음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sup>7)8)</sup>.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73.6→71.9)은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지방(72.9→70.1)도 마찬가지로 전월의 수준으로 조사됨.

<표-4>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인건비	2019년 8월 평가	71.9	70.1
	2019년 9월 전망	75.8	76.2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7) 내국인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에 관한 논란 등이 예시임  
 8) SOC 등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현 시점과 달리 향후 몇 년 간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한 건설공사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해당 부문의 기능인력 수급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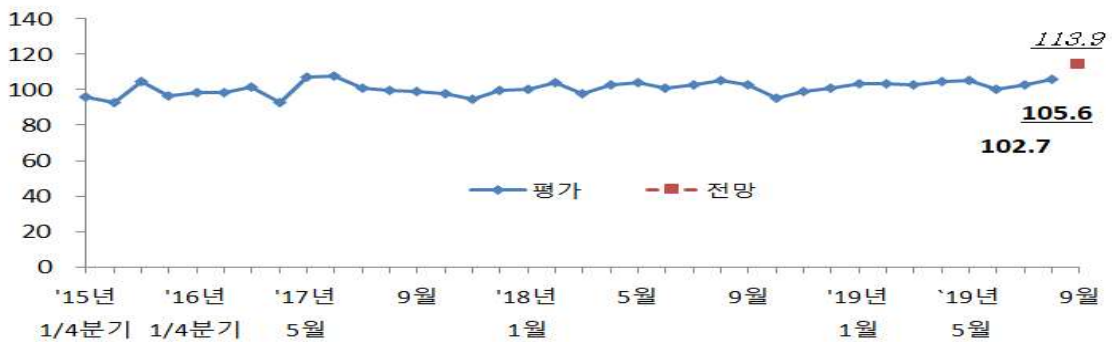
#### 4. 자재수급지수<sup>9)</sup>

○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105.6(102.7→105.6)으로서 전월과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전월과 마찬가지로 레미콘과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의 하반기 수요전망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PHC과일처럼 가격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자재도 병존하는 상황임<sup>10)</sup>. 또한 일부 지역에서 레미콘업체의 85제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진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sup>11)</sup>.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00.0→104.6)과 지방(106.8→103.6)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5>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자재수급	2019년 8월 평가	112.5	111.0
	2019년 9월 전망	107.0	108.5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9)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10) 지난 5월 이후로 눈에 띄게 증가한 플랜트 및 주택공사물량에 의한 수요증가로 알려짐  
 11) 고양시 일대에서는, 수입 감소로 인해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이 8.5제를 중단하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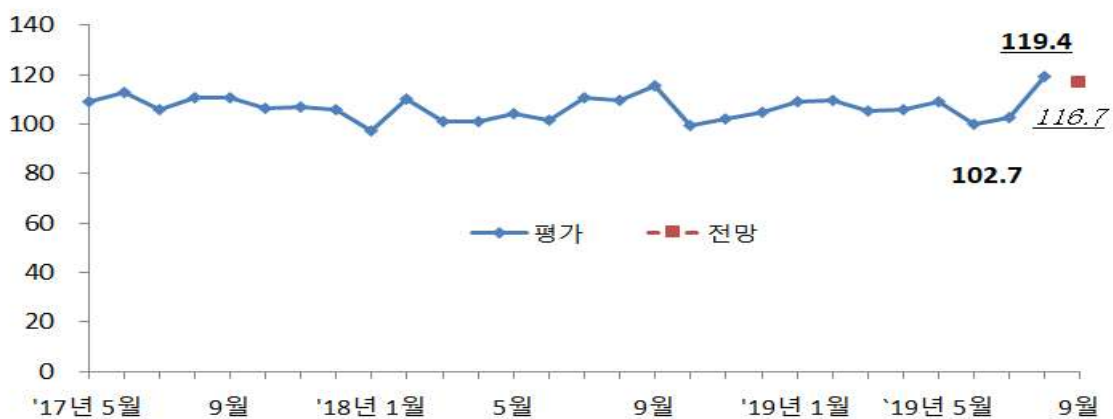
## 5. 건설장비수급지수<sup>12)</sup>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

- 장비수급지수는 119.4(102.7→102.7)로 전월 및 전년 동월(109.4)보다 개선되었지만 이런 차이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님. 종전과 마찬가지로 8월도 건설현장에서 부각된 장비수급 문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수도권(100.0→114.1)과 지방(107.1→115.2)에서 모두 전월보다 높은 응답결과가 집계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 수치의 차이는 특출난 문제는 없다는 현황점검 정도의 의미로만 볼 수 있음.

<표-6>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장비수급	2019년 8월 평가	119.4	115.2
	2019년 9월 전망	116.7	109.8



[그림-5]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추이

12)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 참고: 2019년 8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4.4	57.8	54.9
		차월 전망	61.1	69.5	67.7
공사물량	원도급	금월 평가	33.3	51.6	47.6
		차월 전망	50.0	65.6	62.2
	하도급	금월 평가	36.1	47.7	45.1
		차월 전망	47.2	62.5	59.1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1.1	64.1	63.4
		차월 전망	66.7	70.3	69.5
	자금조달	금월 평가	58.3	64.8	63.4
		차월 전망	61.1	71.9	69.5
인건비		금월 평가	63.9	71.9	70.1
		차월 전망	77.8	75.8	76.2
건설자재 수급		금월 평가	105.6	112.5	111.0
		차월 전망	113.9	107.0	108.5
건설장비 수급		금월 평가	119.4	114.1	115.2
		차월 전망	116.7	107.8	109.8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